

# 순천시, 첨단 스마트 관광안내소서 손님맞이

## AR 디오라마·VR 관광체험 등 멀티미디어 관광 서비스 제공

순천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순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디지털 관광안내북을 활용한 순천시 첨단 스마트 관광안내소를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27일 순천시에 따르면 첨단 스마트 관광안내소는 기존의 순천시 관광안내소(여행지도 제공과 해설사 설명 위주)를 AR 디오라마, VR 관광체험, 디지털 관광안내북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현실과 가상세계를 융합시킨 콘텐츠로 새로 구축하여 관광객에게 새로운 차원의 흥미로운 여행정보를 제공한다.

순천을 찾는 레일러 등 관광객이 순천시 첨단 스마트 관광안내소에 들어서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 AR(증강현실) 디오라마이다.

AR 디오라마는 순천시 전체 모양을

미니처로 제작하여 순천시의 주요 관광지를 한눈에 보고 전반적인 여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스마트 패드를 통해 정원박람회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정보와 역사를 영상과 음성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VR 관광체험은 가상체험 장비에 탑승하여 전용 안경을 착용하면 순천시 상공을 열기구로 타고 날아다니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관광지들을 미리 볼 수 있는 360도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광지의 날씨, 계절 변화에 따른 실감나는 3D 영상과 드라마 촬영장에서 만나는 고고댄스 경연대회를 관람하고, 낙안읍성에서 전통놀이 투호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등 관광지별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한다.

디지털 관광안내북은 여행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자책판 서비스이다. 전자책판에 표출되는 관광지별 멀티미디어 정보는 관광



순천시가 순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순천시 첨단 스마트 관광안내소를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순천시 제공

해설사의 설명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디지털 홍보지이며, 외국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순천시 디지털정책과 관계자는 "순천시 첨단 스마트 관광안내소가 여름휴가

철에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차별화된 순천여행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순천시를 디지털기술과 관광서비스가 결합한 스마트 일류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sjbae@jnilbo.com

## 고흥군-춘천시 교류 협력 특산물 판촉·관광·체육 등



고흥군은 지난 26일부터 27일 이틀간 자매결연도시 강원도 춘천시 육동한 시장 등 대표단 30여명이 1박2일 동안 고흥군을 방문해 두 지자체 간 끈끈한 우정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강원도 춘천시 대표단 방문은 지난 2월28일 춘천시청에서 양 지자체가 자매결연을 맺은 인연을 시작으로 교류협력 활성화와 행정과 민간분야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고흥군을 방문하게 됐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춘천시에서 고흥군까지 먼 길을 달려오신 육동한 춘천시 장님과 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자리를 계기로 두 도시의 정이 더욱 돈독해지고 교류협력 사업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6일 열린 환영행사에는 춘천고흥루씨와 고흥루씨 종친과의 고흥사랑기부제 교차 기부를 통해 두 자치단체 간의 돈독한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강원도 춘천시 방문단은 26일 만남을 시작으로 27일에는 고흥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쏘아 올린 역사적인 현장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흥군과 춘천시는 앞으로도 상호 교류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우수 농특산물 판촉 등 다양한 교류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지기자

## 여수시, 국동항 일제정비 추진 장기 방치선박·불법적치물 등

여수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 어항인 국동항의 장기 방치선박 및 불법적치물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국동항에 수년간 장기 방치된 선박들이 다른 어선의 접근을 방해해 왔으며, 250m의 파제제에는 불법 적치물이 미관을 저해하는 중이다.

이에 여수시는 앞서 6월 초에 장기 방치선박 및 파제제 불법적치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 장기 집안 추정선박 97척, 어선등록증 미부착 선박 87척 등 총 514척의 선박 및 불법 적치물은 60여점, 약 100톤을 파악했다.

시는 장기 방치추정 선박 중 어업허가 취소 및 어선등록 말소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어선등록증 미부착 선박에 대해서는 제거 공고 후 자체 처리 및 고발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단, 폐기처리 선박이 50척 이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침몰위험 선박에 대해서는 제거 공고를 통해 오는 8월 중으로 처리하고, 미 처리된 선박은 2024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국동항이 어항으로서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른 조치"라며 "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기자

## 장흥담 휴게소 내 쉼터 조성 "지역 특산물·물멍 즐기세요"

장흥군 유치면이 조성한 장흥담 휴게소에 흔들의자와 쉼터가 주민들과 유치면을 경유하는 운전자,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장흥담 휴게소 내 쉼터는 장흥담의 빼어난 풍광과 주변 산 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쉼터가 있는 휴게소에서는 유치에서 생산되는 원목표고버섯과 양봉 꿀 등 지역 특산품을 판매한다.

안경아 유치면장은 "유치면은 천혜자연이 아름다운 곳으로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장흥군 슬로시티의 중심지"라며 "장흥담 관광자원화 사업 등 명승화 사업을 추진 살기 좋은 유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전환 기자



장흥군 유치면이 조성한 장흥담 휴게소에 흔들의자와 쉼터가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장흥군 제공

## 여수시, 농작업 신체상해 보상 보험료 지원

여수시는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80%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 3억 2000여만원을 확보,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만 15~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가입 대상이며,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재해피해를 보장한다. 특히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상해·질병 치료비 등도 보장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보험대상 농기계 12종을 보유한 19세 이상 농업인이 농작업 중 농기계로 인한 대인·대물, 자기신체 사고 시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 희망 농업인은 오는 12월10일까지 지역 농·축협에 방문해 신청하고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더 자세한 보장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 본점 및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빠짐없이 가입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기자

## 보성군 "고향사랑기부제로 지역 상생발전 앞장"

### 보성 화천 농협-화순 이양청풍농협

보성군은 지난 26일 보성군 화천농협과 화순군 이양청풍농협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및 응원 메시지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협력 자치단체와의 자발적인 교차 기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기부는 보성군 화천 농협(조합장 정각상)과 화순군 이양청풍 농협(조합장 안상섭) 임직원 56명이 참여해 각 지자체에 500만원씩 전달됐다.

안상섭 이양청풍농협 조합장은 "지역적으로 인접한 보성군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교류하게 돼 기쁘다"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 시대를 대비하고 농촌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철우보성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교차 기부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준 보성군 화천 농협과 화순군 이양청풍 농협 임직원들께 감사하다"며 "지역농협 간 협력이 보성군과 화순군 지역 상생 발전과 우리 농산물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보성군 화천농협과 화순군 이양청풍농협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및 응원 메시지 전달식을 가졌다. 보성군 제공

## 함평군, 관광 취약계층 157명에 여행 제공

함평군이 관광 취약계층 157명에게 전남지역 여행 기회를 제공한다.

함평군은 '행복 여행활동 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신체적·경제적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에게는 1인당 15만원,

장애인은 동반자 1인을 포함해 30만원 상당의 당일 여행 상품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세 이상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한다.

모집 인원은 저소득층 137명, 장애인 20명 등 총 157명이며 7월14일까지 주소

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여행이 어려웠던 군민이 이번 행복여행을 통해 아름다운 남도 관광지를 여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 여행활동 지원사업 1차 참가자 30명은 지난 26일 목포시 일원에서 해상케이블카, 유람선, 근대역사문화거리 등을 여행하는 일정을 마무리했다.

함평=신재현 기자